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 2

정말 드라마 같은 18 일 동안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어제 포틀랜드 (Portland) 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끝내고 지금 시애틀(Seattle)에서 귀국편을 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해 주신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를 포옹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가슴을 저미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가슴에 안기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 무언가가 울컥하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진 재해 이후로 꺾꺾 눌러놓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그것이 안타까움인지 슬픔인지 괴로움인지 아픔이었는데 모르는 것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저를 덮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려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제지 불능의 상태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방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일로 또다시 이렇듯 제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평생 계속되지는 않겠지요? 혹시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될수있는한 이러한 장면은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있게 대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시애틀(Seattle)에서 같은 고향사람인 어떤 젊은 여성이 저보다 앞서 미국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은 지진재해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제가 살고 있었던 도시와 주소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돌아갈 수도, 고향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을 텐데 어디로 돌아간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자니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눌러서 덮어놓은 상처가 다시 육신거리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명(共鳴) 이란 아마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또한 아무도 모르는 슬픔을 그러안고서도 어떻게 자신을 컨트롤하며 인생의 험한 파도에서 어떻게 키를 잡고 서있는지요? 가슴 속 깊은 상처 그리고 슬픔과도 타협하면서 이 험한 도정을 어떻게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짙은 슬픔으로 물든 풍경을 덧칠한다해도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슬픔이 눈물되어 떨군 자욱들을 모아서 힘껏 연주해보렵니다. 지금 이곳에 서서 자욱따라 흐르는 새 멜로디를 힘껏 두팔 벌려 연주해보렵니다.

그리고보니 지금 이시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는 멜로디가 생각납니다. 일본의 전원풍경이 떠오르며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콧노래로 불렀을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진재해 이후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작자인 다카노 다츠유키(高野辰之)씨는 메이지 9 년 나가노현(長野縣) 에서 태어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인 누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경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국문학자인 그는 하늘나라인 고향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인생을 작시한 것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셋째 행에 ‘뜻을 이루고 언젠가 고향에 돌아간다’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한 뒤 하늘나라 고향에 이르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단지 ‘토끼 쫓아 뛰던 산 봉어 낚던 맑은 강,,, 언제나 꿈에 그리는 잊을 수 없는 고향,,, 비 오고 바람 불어 가고픈 고향 땅,,, ’ 이렇듯 고향의 산과 들을 갑자기 잃게 된 이들에게는 만감을 교차케 하는 가사로 가득합니다.

곡은 진실한 크리스천인 오카노 사다이치(岡野貞一)씨의 작곡입니다. 40 년간 혼고우(本郷) 중앙교회에서 성가대를 이끌어오신 도쿄예술대학의 조교수님이셨습니다. ‘고향’의 멜로디는 당시 찬송가에서 힌트를 얻어 작곡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쩐지 더더욱 금지구역이 되어버린 집과 고향이 그리워지는 멜로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픔이 눈물되어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로 지금은 갈 수 없는 육신의 고향과 하늘 고향에 이윅고 들어갈 날을 바라보며 소리높여 불러봅시다.

토끼 쫓아 뛰던 산
봉어 낚던 맑은 강
언제나 꿈에 그리는
잊을 수 없는 고향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소꿉동무는 잘 있는지

비 오고 바람 불어
가고픈 고향 땅

큰 뜻 이루어
돌아갈 날 언젠가
푸른 산 나의 고향
맑은 강 나의 고향

저는 지금 시애틀에 와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치로가 활약하고 있는 매리너즈 (The Seattle Mariners) 의 본거지입니다. 그는 가끔 믿을 수 없는 타구를 굴러 잡아내고 절대 불가능하리라는 힘없는 타구도 전력질주로 앞질러 마지막에는 히트로 바꿉니다.

이 고장 신문에 올해 3 번 투수로 이치로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리라 해도 힘을 다해 뛰는 것, 미국인들을 체력면에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은 시대나 나라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모처럼 시애틀에 왔으니 눈물을 닦고 그와 같이 분투해야겠습니다.

(2 월 23 일 시애틀(Seattle)~나리타(成田)편)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국 후 저는 바로 입원중인 성도님을 문안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째서 우리들은 이렇게 또 다시 먼 곳으로 뿔뿔이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자 저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 말대로 한달 후에 저희에게는 이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지없이 또 다시 뿔뿔이가 되어 결국 멀어지고 마는 것인가라는 강박관념 같은 초조함이 발을 걸어 휘감습니다.

그리고 보니 나리타공항 도착 직후에 바로 자동차 네비게이터(navigator)에 당연한 듯이 ‘자택’을 입력하고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달리던 중에 문득 제가 집과 고향 방향으로 아무렇지 않게 차를 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돼버린 건 아닌지요.

그 땅은 지금 유령의 도시로 변했을 텐데,,, 진입금지 구역으로 경찰이 저지하고 있을 텐데,,, 제가 마치 떼쓰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만 한다는 잠재 의식이 떠오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한 무의식의 조건 반사였을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문득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허무한 마음으로 차를 다시 돌리고 있는 자신이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7 만명이 사라진 먼 고향을 마음에 그려보았습니다. 지금쯤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진 도시의 구석까지 어둠이 깔려있을 거라고,,, 그래도 작년 가을에는 사람은 사라졌어도, 강에 연어들은 일제히 돌아왔을까? 등등을 생각하고 있다가는 갑자기 ‘언제까지 쫓겨나는 감상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자신을 흔들며 깨우려는 듯이 차를

도쿄 캠프장으로 몰았습니다.

이전에 미야케무라(三宅村) 사람들은 화산분화로 인한 강제 피난을 해야만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자신을 유지해왔으며, 힘든 고비 고비를 넘어왔는지, 길어지기만 하는 유랑생활을 견디어낸 그 힘과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년 전에 저희는 모두 함께 같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파도가 부서져 흩어지듯 왜 이렇게 비정하게도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년이었습니다’ 라고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영화나 드라마를 따로 볼 필요가 없겠지요. 그 어느 영화보다도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이 현실이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달 여행길에 앞서 제 일 단락을 짓는 의미에서 이 이별회를 '제 1 기 지진재해 졸업식' 이라고 명명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갑자기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지진 재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집을 잃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어려운 캠프장의 집단 생활에서 일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른 아이 모두 잘 참고 견디어 주었습니다. 보통 있을 수 없는 생활을 전국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며 일년동안 많은 인내와 수고로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눈앞에서 갑자기 교회가 사라지고 후쿠시마현만이 복귀에서 멀어져가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교회로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지진 재해 몇 번지가 되겠는지요?

(2월 25일 일요일 오쿠타마(奥多摩)로 귀가)

지금 저는 대만 상공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대만입니다. 글을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야채절임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 5 대만 상공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